

‘친환경 작두콩’으로 역대소득 꿈꾼다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에 위치한 ‘강진도깨비농장’. 송용기, 홍여신 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을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으로 귀농한 송용기(54세), 홍여신(47) 부부의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이 화제다.

지난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에 귀농해 4년째 ‘강진도깨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부는 작두콩은 썰어 말린 상태로 밀봉하면 저장성이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두콩을 주요 상품으로 확대 재배하기 시작했다.

잘 씻어 말린 뒤 주문량에 따라 뒤기만 하면 되는 작두콩은 저장성이 좋고 수요가 높아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효자 상품이다. 특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EM농법을 실천, 미래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과 GAP인증까지 획득했다.

EM농법은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그 발효액을 물에 희석해 땅에 주입하는 친환경 농법의 종류이다. 생선

군동면 석교마을 귀농 4년째 ‘도깨비농장’ 저장성 좋고 수요 높아 안정 소득창출 기여

액, 굴껍질, 채소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발효액은 그 자체가 천연 영양제가 되어 작두콩의 맛과 짭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지난 2017년 친환경 작두콩 12톤을 성공적으로 수확했다.

작두콩을 기반으로 도깨비팍 브랜드를 개발, 가공해 마법의 작두콩차, 유기농 잡곡(현미, 백미, 귀리, 흑미)에 작두콩을 첨가한 오곡 라이스팍, 100% 원액 자색 양파즙 등 다양한 상품을 강진도깨비농장블로그(<https://kangjinac.blog.me/>), 모두홈페이지(<https://kangjinac1004.modoo.at/>)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초록민들레 직거래지원센터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량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인 5천만원과 비교해 볼 때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는 강진군 지역 30여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작두콩 작목반을 구성하여 직접 1대 1 맞춤형 현장 재

배기술 교육도 하고, 이들 농가들과 작두콩 33,600㎡ 계약 재배를 체결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9일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영홍소평 론칭’ 품평회에 참가해 전국 62개 업체 중에서 홍소평 MD(구매 담당자)들이 선정하는 최종 우수 브랜드 6개 업체로 선정, 공영홍소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까지 획득했다. 햇작두콩 수확이 끝나는 10월을 기점으로 홍소평에 진출해 ‘친환경 강진 작두콩차’를 전국에 알리고 본격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홍여신 대표는 “올해 강진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작두콩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홍소평을 통해 판매해 농업소득 역대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시, 중식품업체에 수산식품 설명회

자매결연 사면시 사상그룹 대상 김 등 전시 및 시식행사

목포시의 대중국 경제교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전망이다. 목포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푸젠성 사면시의 사면 사상그룹 비즈니스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목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김 관련 제품의 전시 및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상그룹이 지난 3월 설치한 한국 수입상품 전문판매코너에서 전시·판매할 전라남도 농수산물 확보를 위한 방편에 맞춰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사면 사상국제무역공사, 사면 사상민홍수퍼마켓공사, 사면 해하하불련과학기술유한공사 관계자들과 목포 관내 김 관련 수출업체들이 참여했다.

사상그룹은 지난 1993년 설립된 중국 푸젠성(복건성) 사면시의 10대 종합 국영기업 중 하나로서 푸젠성의 그룹기업 6위에 올라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액이 250억위안(4조2,320억원)을 돌파했다.

중국 남부 최대 유통회사인 사상그룹은 지난 2015년 해외에서 각종 프리미엄 제품을 직접 수입해 사면, 취안저우, 청두, 다롄 등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다. 국가별 수입상품 전문판매코너는 2015년 뉴질랜드에 이어 올해 한국을 두 번째로 개설했다.

정순주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한중관계가 화해 무드 전환된 것에 발맞춰 수산식품 수출선 개척과 함께 해상케이블가 개통에 대비해 관광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면시는 중국 5대 경제특구이며,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구랑위(鼓浪嶼) 섬이 유명하다.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사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마라톤, 육상 투척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원도심 명문동 일부구간을 사면시 명예도로인 ‘사면로’로 명명하고 도로 바닥에 이를 알리는 동판을 설치했다.

곡성 석곡농협 ‘백세미’, 장미축제장서 만나요

곡성군 석곡농협 백세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백세미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만나왔으며 지난해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고령 고객을 확보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백세미로 만든 가래떡을 판매하고 백세미로 지은 밥을 시식할 계획으로 축제장을 찾은 손님들은 천사장미원의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백세미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백세미는 양재동 고객센터

당, 안성휴게소 하행선 별관식당, 곡성축협명품관에서도 밥쌀로 사용되고 있어 축제장 오시는 길에 미리 맛보고 축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백세미 할인 행사와 함께 무료택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백세미 구매 고객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세미 판매장은 축제장 정문 맞은편에 있으며 축제장에 오신 손님들은 천사장미원의 향기로운 백세미 향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김광희 기자

영암 무화과 산업특구, 국내 넘어 세계로 중국 무화과 산업연맹 · 서울대 농경제학부팀 방문

중국 무화과산업연맹(이사장 짜오홍유) 소속 회원 12명과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문정훈 교수)팀이 전국 무화과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무화과 산업특구로 지정된 영암군을 지난 5월9일 방문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영암군 관계공무원과 상호협력 및 (주)녹색무화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영암군 무화과 산업소개와 중국 무화과 산업소개, 영암무화과 가공공장 견학 및 영암무화과 유통시설, 무화과 재배농가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무화과 산업연맹 회원들은 상호협력 무화과 가공시설과 영암무화과 재배농법(시설하우스)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무화과 양경, 무화과즙 등을 시식하고 중국무화과 산

업에 접목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오는 6월22일부터 6월25까지 중국 웨이하이(산둥성) 국제식품박람회 영암군 상호협력을 초청하였으며, 웨이하이(산둥성) 국제식품박람회는 영암에서 생산된 무화과 가공제품 전시판매와 더불어 양 지역 간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도론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영암군과 중국의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군, 서울 조계사서 직거래장터

음력 4월 초하루 맞아 내일부터 사흘간 개최

해남군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 도·농 상생 땅끝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김, 미역, 멸치, 잡곡류와 해남 농산물을 가공한 전통장류 등 80여종의 다양한 해남 농수특산물을 시종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인 조계사는 서울의 도심인 종로 한가운데 위치한 시민들의 수행과 산행활동 그리고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매월 음력 초

하루면 많은 신도들이 방문하는 대규모 사찰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조계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통해 우수한 해남 농수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돼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관내 농수특산물의 인지도 강화와 도농간 상생 소비를 위해 매년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 지역 쇼핑몰인 ‘해남미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판촉강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지킴이

전화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